

프로메테우스가 아닌 시시포스로서 마르크스

마르크스만큼 많은 전기가 쏟아진 인물이 또 있을까? 세상을 떠난 지 150년도 채 안 되어 벌써 중요한 전기만 해도 서가 하나를 다 채울 지경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러스 스테드먼 존스가 내놓은 『카를 마르크스』는 최근까지의 마르크스 연구를 집대성하여 그 이전의 여러 전기들의 한계와 결함을 극복한 저작으로서, 프란츠 메링과 데이비드 매클렐런의 뒤를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표준적인 기준이 되는 전기라고 생각된다.

혹자는 이러한 말들을 번역자가 자신의 작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으레 늘어놓게 마련인 상투적인 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마르크스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난점 및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의 마르크스’의 혼란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온 주요한 마르크스 전기들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었는지를 돌아본 뒤, 이 책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를 역사와 사회의 ‘과학적 진리’를 밝혀낸 이라고 선전하면서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온 프로메테우스의 이미지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마르크스 연구는 그러한 이미지가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무리하게 뒤집어씌운 껍데기라는 점을 밝히고 그 아래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마르크스 사상의 속살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핀셋으로 집어낸 속살들은 여전히 파편적인 일부에 불과할 뿐 그 전체상이 어떠한 것인지는 애매모호한 상태였다. 이 책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개러스 스테드먼 존스는 역사학자로서 또 사상사가로서 엄밀한 방법과 판단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노출된 마르크스의 속살을 종합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해안으로 구성하여, ‘마르크스주의’라는 달팽이 껍질 속에 숨어 있는 ‘마르크스’라는 민달팽이의 모습을 꼬리에서 두 개의 빨까지 총체적으로 그려 낸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촉촉하고 다치기 쉬운 상처투성이의 민달팽이 마르크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끊임없이 박치기로 들이대고 밀어붙이다가 또다시 나동그라지는, 급기야 기진맥진하여 숨이 끊어진 시시포스에 가깝다. 이렇게 모든 환상과 환멸을 넘어서서 자리에서 비로소 19세기의, 어쩌면 인류 지성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하나일 수도 있는 마르크스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마르크스 저작의 특징

사상사의 한 획을 그은 주요한 인물들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그 사상의 복잡성과 심오함에 더하여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또 있다. 그것은 마르크스 자신이 저술한 논고論考, *treatise*, 즉 일정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특정한 주제와 논지를 체계적으로 전개한 저작이 『자본론』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나머지 마르크스의 저작은 모두 팸플릿, 논쟁polemic, 저널리즘 그리고 미출간 수고 및 노트들이다. 다른 사상가들은 그들의 사상 전모를 이해하는 데 기

등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노작 magnum opus 들(칸트의 경우 '3대 비판서')이 있게 마련이다. 그 노작들은 스스로의 논리와 방법론을 갖춘 논리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저작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독파하고 나면 그 사상가의 생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림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경우 그의 사상이 펼쳐져 있는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자본론』 하나를 파고든다고 해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도 없을뿐더러 거꾸로 마르크스 사상 전체와 그의 삶 및 실천에 대해 상당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자본론』 자체도 충분히 음미하기 어렵다는 악순환 고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저작과 사상의 특징은 곧 그가 19세기 유럽의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 발전 및 정치적 격변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깊이 잠겨 불가분으로 엮인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마르크스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품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 19세기 유럽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변화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와 발맞추어 어떠한 사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지성사 history of ideas 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마르크스가 지식인으로서 또 실천가로서 백과사전적 encyclopedic*인 전방위적 성격을 지향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 각각의 범위가 또 무한정으로 불어난다. 역사라고 해도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제도사의 여러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지성사 또한 철학사, 경제학설사, 사회주의 사상사, 정치 이론사 등의 이질적인 분야들이 모두 포괄된다.

이러한 여러 주제를 두루 섭렵하고 상당한 이해를 가지기 전에는 마르크스가 그 다양한 형태의 저작들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토록 독랄한

* 이 말은 원래 '원을 그리며 걷는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단순히 박학다식, 박람강기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일관된 그림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마르크스는 시야의 범위에 있어서는 지성사에서 기념비적인 '백과사전적' 인물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조를 구사해 가며 분노를 터뜨리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경제 이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영향을 받은 오언주의자 경제학자들의 노동가치론 그리고 조제프 프루동의 '노동화폐' 개념 등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종교는 심장 없는 세계의 심장이며 인민의 아편'이라는 유명한 구절 하나를 이해하려면 헤겔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비판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에 대한 지식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야만 한다. 『자본론』 초두에 전개되는 가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겔 논리학의 '존재론'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며, 『강요Grundrisse』가 어찌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자본주의를 파악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영국을 풍미하던 '맨체스터 유파'의 곡물법 철폐와 자유무역 운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코뮌에 대한 지식은 물론 프랑스혁명 당시의 국민공회를 거쳐 고대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과 독재관 제도를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해 블랑키와 바쿠닌 사이에서 마르크스가 어떻게 독자적인 입장을 취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국가의 사멸'을 이해하려면 생시몽의 '행정적 국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정치 변혁 속에서의 새로운 국가 형태의 출현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1860년대의 마르크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이라는 개념을 음미하려면 로버트 오언의 '협동' 개념과 프루동의 '상호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루이 블랑의 국영 작업장 *Ateliers Nationaux* 실험과 라살레의 국가조합주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자본론』 3권에서 주식회사를 사회적 소유의 맹아적 형태로 보는 마르크스의 황당할 정도의 천진함을 이해해 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공격적인 주식회사 형태는 마르크스의 사후인 1880년대 이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진 변화의 직접적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국가와 시민사회의 재통합을 통한 모든 소외의 지양이라는 그의 비전을 이해하려면

18세기 말 독일 고전주의 및 낭만주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상화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민족주의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알랑한 도식 하나에 몰각되어 1870년대 이전의 유럽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민족주의와 혁명 투쟁이 맺고 있었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르크스가 왜 폴란드와 아일랜드에 대해 그토록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프로이센과 러시아 제정을 그토록 사갈시켰는지, 제1인터내셔널 안에서 왜 마치니가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마르크스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으로 이어지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내용과 그 내포된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에 나오는 마르크스의 시민권 비판은 이해할 수 없다. '이윤을 저하의 법칙'은 애덤 스미스에서 리카도와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도록 고전과 경제학에서 상식처럼 여겨진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으니, 그 이념사와 1873년 이후의 장기 불황을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주장이 갖는 독창적인 천재성과 설득력,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드라마를 이해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역사적 방법론과 논리적 범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겔의 논리학과 역사철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대 공동체와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적 제형태에 대한 마르크스의 환상과 오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와 인류학의 19세기의 발전 상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등등등.*

게다가 종래의 통념을 넘어서서 마르크스를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다.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20세기의 가

* 사실 이는 전문 연구자라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짐을 덜어 주는 한 방편은 마르크스(주의) 사전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Tom Bottomore ed.,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2nd ed. (London: Blackwell, 1991)는 필수불가결의 참고서이다. 일본 학계에서 최근에 출간한 『맑스 사전』은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지금 네이버에서 전문을 검색할 수 있다.

장 유력한 학문적 패러다임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도, 또 사상사 연구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연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 맞추어 역사와 사상사를 서술해 놓은 것들이므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사 및 사상사 서술까지도 넘어서서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폭넓게 공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의 도식에 따라 프랑스혁명을 부르주아혁명으로 보고 거기에 맞추어 서술한 프랑스혁명사만 읽는다면, 마르크스가 프랑스혁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환상과 오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쏟아져 나왔던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학계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저작들은 그 점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대상들이다.*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넌 뒤에 이제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 압도적인 분량 때문에 ‘죽음의 암벽 등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권이 훌쩍 넘는 학술적 전집MEGA은 제쳐 놓는다고 해도 ‘대중적’ 영어판 전집MECW은 50권이며 독일어판MEW도 40권이 넘는다. 어린 백성을 ‘어엿비’여긴 마르크스-엔겔스 연구소에서 내놓은 선집만 6권(일본어 번역본은 8권)이다. 로버트 터커Robert Tucker와 데이비드 매클렐런이 각각 한 권짜리 선집을 내놓았지만 만약 번역한다면 모두 깨알 같은 글씨로 1000페이지가 훨씬 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중 일부만 읽는다고 해 봐야 방대한 그의 사상의 극히 일부를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 하는 격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절감하게 된다. 절망에 빠진 이들은 결국 분량과 시간의 ‘가성비’를 생각하여 『공산주의 선언』이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과 같이 아주 짧고 유명한 저작을 읽게 되지

* 특히 오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 집단의 서양사 및 서양 경제사학은 마르크스와 베버를 거의 전범으로 삼아 연구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 가치가 무엇이든 이를 교조적으로 수용한 1980년대의 한국 진보학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 이 또한 크게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이때부터 각종 대중적 해설서에 의존하게 된다. 사실 마르크스의 사상 전체를 ‘대중적으로’ 해설해 놓는 책은 아마도 전 세계 출판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르의 하나일 것이며, 여기에 도전하는 저자들도 무수히 많아서 최근에는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르크스 자신의 저서를 읽는 이들은 사실 정말 적고, 그에 대한 향간의 지식과 정보는 대부분 이러한 잡다한 해설서에서 나온 단편적인 것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마르크스주의의 마르크스, 그 혼란

마르크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다. 겔브레이스의 재치 있는 표현대로 그는 ‘뛰어난 역사가이기도 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된 인물이다. 그 점에서 마르크스는 20세기의 역사에 있어서는 예수, 공자, 석가모니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아이콘이었다. 그래서 20세기의 모든 정치적 집단은 마르크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극우에서 극좌까지의 모든 스펙트럼을 마르크스에 대한 입장을 프리즘 삼아 분류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각각의 정치 세력은 마르크스라는 인간과 사상에 대해 저마다의 상을 구축하여 들이밀었고, 다른 세력들이 구축하여 들이미는 상에 대해서 또한 독랄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자유주의자들을 포괄하는 범우파 진영

* 물론 이는 대단히 편중되고 피상적인 마르크스의 이해를(혹은 오해를) 낳는다. 이 정도에 이르러 지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David McLellan ed, *The Thought of Karl Marx: An Introduction* 2nd ed. (London: Papermac, 1980)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마르크스 인생의 연대기별로, 또 주요 개념별로 중요한 텍스트들을 발췌하고 설명과 주석을 달아 놓아 편리하면서도 충실한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량도 2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 책의 1판은 옛날에 번역된 적도 있으니 헌책방이나 도서관을 찾아봄 직하다.

에서 제시하는 마르크스의 상과 비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공격이 가장 뾰뾰하게 오갔던 곳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였다. 어찌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 예수가 신인지, 인간인지, 혹은 둘 다인지에 대해 가장 핏발을 세우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가며 싸웠던 이들은 이교도들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나타난 모든 분파는 마르크스의 삶과 사상에 대해 저마다의 저작을 내놓으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집단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집단이었다. 그 압도적인 정치적 힘은 물론 마르크스의 문서고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이 책의 참고 문헌 부분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문헌학적 엄밀성에서나 정치적 객관성에서나 모범적이었던 초기의 전집MEGA 출간 시도가 그 편집자 리아자노프의 숙청으로 1930년대에 중단된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문서고는 몇 나라를 떠돌면서 소련 공산당과 독일 사회민주당과 사회사 연구소 등으로 나누어져 버렸다. 상태가 이러했으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의 선별과 편집과 출간은 압도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소련과 독일의 공산당이 칼자루를 잡게 되었다. 이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엥겔스, 카우츠키, 플레하노프, 베벨, 메링 등에 의해 마련된 제2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의 모습을 토대로 하여 대단히 '정통적인' 마르크스의 상을 제시하여 이것을 표준적인 영정으로 삼아 버렸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불만을 품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미 1920년대부터 루카치와 코르시Karl Korsch, 보르디가Amadeo Bordiga와 파네킵크Anton Pannekoek를 시작으로 대안적인 마르크스 해석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1932년의

*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열한 저서들도 있지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도 많다. 몇 가지 예로 레쎬 콜라코프스키Leszek Kolakowski, 에릭 뢰겔린Eric Voegelin, 클로드 르포르르Claude Lefort, 카를 야스퍼스의 여러 에세이를 들 수 있다.

『경제학-철학 초고』의 출간은 이러한 불씨에 기름을 부었고, 그 이후로는 프로이트 및 헤겔을 끌어들이던 프랑크푸르트학과,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과 연결시키는 프랑스의 사르트르, 거기에 니체까지 덧붙인 앙리 르페브르 등이 나타나서 마르크스 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더더욱 다양하게 해석하는 시도가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백가쟁명으로 완전히 개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마르크스 해석의 혼란상에 있어서 진정으로 지옥문을 열어젖힌 이는 루이 알튀세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헌학적인 엄밀성에 대해서는 물론, 심지어 마르크스주의 내에서의 사상사 및 논쟁사에 대해서도 놀랄 만한 무지로 무장한 그는 엉뚱하게도 프랑스 특유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내걸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마르크스를 이리저리 찢어 붙이는 ‘독해’라는 유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페리 앤더슨이 이끄는 영국의 『뉴레프트리뷰』는 영어권 세계에 알튀세르식의 마르크스 해석을 지적인 패션으로 만들어 버렸고, 영어권 세계의 지적 영향력으로 인해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일은 이러한 지적인 서커스와 논리적 반전을 거듭한 끝에 도출해 내는 결론이 결국 정통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주의의 교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창시한 전통적인 ‘과학자’ 마르크스의 모습을 지켜 내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의 마르크스 연구와 해석은 거의 누구나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상상을 덧붙여서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어 원하는 논적을 뭉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듯이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일생 동안 보였던 다양한 정치적·사상적 편력으로 인해 그러한 자의적 해석과 오용은 나름대로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자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는

* 이와 대조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카렐 코지크Karel Kosik의 『구체성의 변증법』은 지적 깊이와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이 책이 1980년대 한국에 번역된 것은 실로 행운이었다고 할 것이다.

학문적이나 실천적으로나 거의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혼란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세 유럽의 모든 철학자가 다 성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폈듯이, 20세기 말엽의 마르크스는 누구나 원하는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무게를 실어 상대의 머리통을 때리는 ‘만인의 몽둥이’가 되고 말았다. 어차피 앞에서 설명한 이유에서 마르크스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알게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마르크스를 마음대로 떠들어 댄 뒤 혹시나 반론이나 비판이 들어오면 다음의 몇 가지 신공만 휘두르면 된다. “당파적 계급적 혁명적 관점이 부족하다.” “당신은 해겔을 제대로 읽지 않아 변증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마르크스도 『자본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혹시라도 완전히 강적을 만나서 철저히 털리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를 방패로 써서 슬쩍 웃으며 빠져나오면 된다. “마르크스가 그랬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마르크

❖❖ 알튀세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기가 『자본론』을 거의 읽지 않았으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권위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읽지 않았다’는 말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1844년 초고』의 청년 마르크스와 『자본론』의 과학적 마르크스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그의 중심 주장은 양쪽의 연속성을 명백히 보여 주는 『강요』가 이미 1953년에 출간되어(최초 출간은 1939년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회귀본이 되고 말았다)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에서 용납이 되기 힘들며, 폴라코프스키에 의해 독일어 능력을 조롱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라는 문제가 이미 1890년에 체코 철학자 마사릭Tomas Masaryk에 의해 제기되어 크로체Benedetto Croce와 라브리올라Antonio Labriola와 소렐George Sorel 사이의 유명한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조차 그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알튀세르에 대한 영국 마르크스주의 진영의 비판은 톰슨E. P. Thompson의 『이론의 빈곤Poverty of Theory』이 있지만 이는 여러 약점이 있어 이후 앤더슨 등에 의해 논박당한다. 톰슨보다 더 간략하면서도 훨씬 더 파괴적인 알튀세르 비판으로는 Leszek Kolakowski, “Althusser’s Marx”, *Socialist Register*, vol. 8, 1971. 알튀세르의 ‘마르크스주의 위기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Cornelius Castoriadis “Les crises d’Althusser. De la langue de bois à la langue de caoutchouc”, *Libre*, 1978, 4, pp. 239~254. 알튀세르의 결론이 사실상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의 옹호라는 지적으로는 Harry Cleaver Jr. *Reading Capital Politicall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가 있다.

❖❖❖ 가치론과 둘러싼 논쟁의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다. 모리스 돕Maurice Dobb과 일리치 루빈Isaak Illich Rubin과 로널드 미크Ronald Meek와 리피에츠Alain Lipietz는 모두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자신의 근거를 찾아내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폐론으로 불똥이 옮겨 간 듯하다. 모름지기 마르크스는 상품화폐론자인가 신용화폐론자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양쪽 모두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는 레닌의 『철학 노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스도, 마르크스주의도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마르크스도 마르크스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 이름의 '유령'만이 떠돌고 있을 뿐.*

마르크스 전기의 짧은 역사

앞에서 말한 대로 마르크스의 전기는 부지기수이므로 그 발전의 역사 자체가 하나의 연구 주제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일천한 지식 안에 있는 몇 개의 마르크스 전기만 시간적으로 나열해 보아도 앞에서 말한 여러 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마르크스의 삶의 스토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세히 잘 알려져 있었다. 여기에는 1918년이라는 아주 이른 시기에 나온 프란츠 메링의 마르크스 전기가 큰 역할을 했다.** 이 저서는 연구의 깊이와 문서 근거로 보나, 또 저작의 세밀함과 일관성에 있어서나 높게 평가할 만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마르크스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게다가 바쿠닌과의 싸움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마르크스에 대해 사뭇 비판적인 태도도 보이는 등 균형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이는 메링으로 대표되는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 나아가 제2인터내셔널 지도자들이 대략 공유하고 있었던 이상화된 인물로서 마르크스의 모습을 제시하는 표준적인 영정이기도 했다. 마르크스의 인격적 결함과 실수 및 실패는 은폐되거나 모호하게만 제시될 뿐이다. 마르크스는 오로지 노동계급

* 얼마 전에 나는 『마술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제목의 책까지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과학자'를 자처하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할 것이다.

** Franz Mehring, *Karl Marx: The Story of His Life*. 이 저작의 영역본은 지금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의 해방과 인류의 진보라는 이상 하나로만 짝 찬 인간으로, 탄압과 빈곤과 시대의 몰이해와 온갖 사악한 논적들과 싸워 가며 희생으로 일관한 끝에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하여 진정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역사적 영웅으로서 그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마르크스의 인간상은 1990년대의 공산주의 몰락의 시점까지도 표준적인 영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로츠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

메링의 전기에 더하여 사상가로서 마르크스의 모습을 사상사적 안목에서 서술하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 내는 전기도 필요했다. 앞에서 말한 이유에서 이러한 작업은 실로 누구도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아마도 20세기의 굴지의 사상사가인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야말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이였다고 할 것이며, 그 자신이 이미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래서 그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후 마르크스 연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 전기가 출간되었다.* 벌린은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사상사 연구의 대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19세기 유럽사와 지성사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것들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마르크스라는 독창적인 천재의 손에서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철학인 동시에 경험적인 과학의 성격도 겸비한 거대한 사상 체계로 형성되었는지를 실로 흥미진진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두 전기는 연구의 성실성이나, 사유의 깊이나, 서술의 일관성에서나 대단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 마르크스 연구의 두 가지 난점을 이 두 저서는 나름대로 극복하고 있다. 이사야 벌린은 그의 놀랄 만한 박식과 혜안으로 마르크스를 역사와 사상사 속에서 확고하게 위치 짓는 데 성공하고 있

* Isaiah Berlin, *Karl Marx: His Life and Environment* 4th ed, with Forward by Alan Ry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안규남 역,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 (서울: 미다스북스, 2013)

으며, 프란츠 메링은 그 전기 저자로서의 성실함과 자료의 풍부함으로 마르크스라는 인물의 삶을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그려 내면서 최대한 정치적 왜곡으로부터 지켜 내고 있다. 그렇기에 이후 소련과 독일의 공산당에서 쏟아 낸 성화聖畫, hagiography와 같은 조악한 마르크스 전기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고전의 위치를 지금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마르크스 전기들은 바로 이 두 저서에서 제시된 마르크스의 그림을 바꾸고 또 바꾸는 과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먼저 논쟁이 된 것은 마르크스라는 인간상에 대한 논란이었다. 과연 마르크스는 그러한 인물이었는가? 초월적인 가치와 이상 하나를 지표 삼아 온갖 고난을 다 참고 오로지 혁명의 길 하나만을 걸어간, 19세기식 초상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었는가? 이 책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마르크스가 남긴 삶의 흔적에 대한 검열과 삭제는 이미 둘째 딸 라우라가 그가 남긴 서한들을 정리하면서 시작되었고, 독일 사회민주당을 거쳐 공산당의 문서고 통제에서 절정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그의 삶과 인간적 모습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가 흘러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그의 인간상에 대해서 주로 우파 측으로부터 중상모략의 의도를 가진 여러 공격이 시작된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하녀에게 사생아를 낳게 만들었다는 선정적인 스캔들은 오직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마르크스의 일생 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빈곤과 질병’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마르크스와 예니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서한과 증언을 볼 때 금전 문제와 건강 문제가 존재했던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쟁점이었고 이는 표준적인 영정에 그려진 근엄하고 고귀한 인간 마르크스의 모습에 더욱 치명적인 흠집을 냈다. 먼저 그의 빈곤은 그와 예니의 귀족적인 사치벽과 무절제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결코 수입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귀족적 사치벽과 무절제함’은 다른 인물은 몰라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수

호자로서 마르크스의 모습에 실로 치명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그가 자신의 나태함과 무책임함을 은폐하기 위한 '피병'이라는 주장도 계속되었다. 그의 서한에 항상 등장하는 원고 제출 지연과 그에 대한 변명의 이야기들은 실로 가지가지의 질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데다 그가 끝까지 자신이 계획한 6부작 저서 『경제학』을 그 1부인 『자본론』, 그것도 그 3권 중 1권밖에 출간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피병'설은 더욱더 파괴적이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사의 대의에서 볼 때 마르크스가 저질렀던 '과잉 행동'들이었다. 그의 서한들과 개인사가 알려질수록 그가 주변 인물들에 대해 피해망상증에 가까운 질투와 증오와 이간질을 행했던 인물이 아니냐는 의심이 깊어 갔다. 특히 간파할 수 없었던 대상은 페르디난트 라살레와 미하일 바쿠닌이었다. 전자는 사회민주주의의 창시자로 오늘날까지도 숭앙되는 인물이며, 후자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여겨져 온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가 두 사람에 대해 행했던 바는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밑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고, 특히 바쿠닌과의 싸움은 결국 제1인터내셔널의 몰락이라는 중차대한 결과의 원인이었다는 아나키스트들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인간적으로 마르크스는 웅변과 행동과 조직의 천재 라살레의 화려함 앞에서 보잘것없는 학자 공생원이었을 뿐이며,* 2미터의 거구이자 그야말로 프로메테우스처럼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10년간 쇠사슬에 묶여 포효했던 혁명의 불꽃 바쿠닌 앞에서는 무표정하고 교조적인 (당이나 노조의) 관료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 이 맥락에서 이채를 띠는 전기로는 Boris Nikolaievski and Otto Maenchen-Helfen *Marx: Man and Fighter* (London: Methuen and Co., 1936)가 있다.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과는 달리 이 책은 마르크스를 미화하고 이상화하는 것보다는 그의 혁명가로서의 투쟁적(심지어 폭력적)인 기질을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 심지어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 선언』까지도 빅토르 콩시데랑 Victor Considerant의 1843년 저서 『사회주의의 원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쏟아진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마르크스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많은 과장과 억측도 섞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표준적인 영정에 그려진 마르크스의 모습은 되돌이킬 수 없도록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논의 과정은 이후 로버트 페인의 마르크스 전기가 출간되면서 이러한 여러 주장들에서 최대한 억측과 과장이 제거되고 새롭게 마르크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복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나타난 마르크스는 분명히 여러 인간적 결함과 모순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열정을 모든 것에 앞세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파렴치한까지는 아니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모습은 분명했다. 분명히 이는 예전의 메링의 전기에 그려진 마르크스는 아니었고,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 일반이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마르크스의 모습은 아니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상가로서 마르크스의 삶을 그 역사적 지성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펼쳐졌다. 프랑스에서의 중요한 인물로는 막시밀리앵 뤼벨^{Maximilien Ruble**}을 들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톰 보토모어^{Tom Bottomore}, 독일에서는 이링 페처^{Iring Fetzer}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 모두에서 프로파간다의 색깔이 되어 버린 마르크스의 시체를 보존하여 포르말린 액체에 씻어 낸 뒤 엄밀한 객관적 학문의 기준에 맞추어 다시 살려 내는 작업에 매진했다. 동시에 마르크스의 시체 위에 피부와 영겨 버린 철가면처럼 붙어 있었던 마르크스주의를 지성사적으로 정리하여 마르크스 자신과 분리해 내는 작업도 큰 발전

* Robert Payne, *Marx*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1).

** 그는 특히 마르크스주의가 주로 엥겔스가 만들어 낸 작품이며 마르크스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입증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Ruble on Karl Marx: Five Essays* ed. by J. O'Malley et. 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을 본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자기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온 19세기의 사회주의 운동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더욱 큰 그림 안에서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마르크스가 차지했던 위치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전의 마르크스-엔겔스 전집이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러시아어판과 그 번역본인 일본어판으로만 존재했다가 1950년대부터는 독일어판으로, 또 1970년대부터는 영어판으로 체계적인 마르크스-엔겔스 전집이 간행되기 시작된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이 토양이 되어 메링의 전기 이후 가장 중요한 저작

*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s, Growth, and Disolution* (New York: Norton and Co., 2005); George Lichtheim, *Marxism: A 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또 Eric Hobsbawm ed., *The History of Marxism: 1. Marxism in Marx's Day* (Brighton: Harvester Press, 1982). 이 책 말미에 실려 있는 스테드먼 존스의 엔겔스에 대한 글은 이 책의 논지를 그대로 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4권으로 기획되었던 이 시리즈는 홉스봄 편집의 1권 이후로는 전혀 성사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 가장 중요한 연구로 G. D. H. Cole,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in 7 volum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George Lichtheim *A Short History of Socialism* (New York: Praeger, 1970); Carl Landauer, *European Socialism: A History of Ideas and Movements in 2 volum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세 사람 모두 확고한 사회주의자였지만 단연코 마르크스주의와 선을 그었던 이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본래 42권으로 기획되었던 마르크스-엔겔스 전집MEGA의 기획은 모든 저작을 번역하지 않고 그 본래 쓰인 언어로 출간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1931년 마르크스-엔겔스 연구소 소장이었던 리아자노프가 숙청당하면서(1938년 처형) 위기에 처했고 애매한 상태에서 몰래 진행된다. 한편 마르크스-엔겔스 연구소는 레닌 연구소와 합쳐지며, 그 이후 1928년에 시작된 러시아어판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집 출간을 1947년까지 계속한다.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마르크스 저작집은 러시아어판으로 존재했다. 일본의 경우 대월서점에서 20권 정도로 나온 전집은 이 러시아어판을 번역한 것이었고, 일본과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 덕분에 마르크스 저작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오히려 러시아어를 읽지 못하는 유럽의 지식인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물론 일제의 '치안유지법'의 검열 때문에 복사자가 많아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는 회고담도 있다). 1957년 이후 러시아어판은 증보를 계속하여 40권이 넘는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동독에서 출간된 독일어판 저작집Marx-Engels-Werke은 이 러시아어판의 편집을 따른 것이다. 한편 1975년에는 소련과 독일의 주도로 전집MEGA의 속간이 재개되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영국의 로렌스앤워셔트, 미국의 인터내셔널퍼블리셔, 구 소련의 프로그레스 출판사가 합작하여 이 전집을 참조한 새로운 편집과 체계로 50권의 영어 저작집Marx Engels Collected Works을 출간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와서야 완결을 본 바 있다. 요컨대 어이없는 일이지만 마르크스의 저작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며, 완전한 전집 출간은 2020년대에도 이루어질 미완의 일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집의 출간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Eric Hobsbawm, "The Fortunes of Marx's and Engels's Writings" in *The History of Marxism: vol 1. Marxism in Marx's Day* (Brighton: Harvester Press, 1982).

이라고 할 데이비드 매클렐런의 전기가 출간된다.* 이 저작은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태도 위에 서서 마르크스의 삶과 저작을 시간 순서로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저작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 또한 적절하게 강조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마르크스는 성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며, 모든 진리를 꿰뚫고 인류의 미래를 밝힌 전지전능한 현인도 아니지만 일관된 문제의식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생에 걸쳐 지적인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밀어붙인 과학자로서 드러나 있다. 요컨대 부풀려지지도 않았고 또 납작하게 짓눌리지도 않은, 또 어떤 목적을 최우선의 인생 과제로 삼아 어떻게 분투하고 희생하며 살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인물로 그려진다. 메링의 전기가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졌지만 분명히 이상화되어 있는 19세기의 초상화라면 매클렐런의 전기는 영상, 그것도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일하고 사랑하고 휴식하고 슬퍼하고 기뻐한 모습을 차곡차곡 찍어 정리한 동영상 모음집같이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 책으로 일단 지금으로서 우리가 새로이 수정된 표준적인 마르크스의 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가 동감하는 바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 풍부한 자료와 객관적인 방법론과 중립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연구되고 서술된 마르크스의 전기를 얻게 되면 끝나는 것일까? 만약 마르크스가 헤겔이나 칸트와 같이 위대한 사상가로 끝나는 인물이라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이미 하나의 ‘역사’가 된 존재이며, 그 때문에 그의 삶과 사상을 둘러싸고 파생된 숱한 논쟁과 싸움들은 이미 책장과 도서관을 뚫고 나와 많은 이가 피를 볼 만큼 다투는 첨예한 현실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마르크스는

* David McLellan, *Karl Marx: A Biography* (London: Papermac, 1995). 이 책은 4판이며, 1판은 1973년에 출간된 바 있다. 매클렐런은 이후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마르크스 연구와 자료 출간을 반영하여 1995년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마르크스주의자였는가'였다. 이는 이미 엥겔스가 살아 있을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다. 1880년대 제2인터내셔널이 결성되면서 국제적 노동운동의 통일된 사회주의 이념의 필요가 대두되었기에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이미 죽어 가고 있었던 마르크스를 제치고 엥겔스와 카우츠키 등의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마르크스의 사상을 당시에 유행하던 유물론과 다윈 진화론과 결합시켜 만들어 낸 일종의 카테일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의 도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무엇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인가'라는 질문과 '마르크스의 진정한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두 개의 긴밀히 결합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바로 『자본론』의 가치와 위상의 문제였다.

『자본론』이 실패한 원고 뭉치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 보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닌 바울 서한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조직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현실적 모습에 대해 저항하는 신도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본래 사상과 메시지가 담긴 복음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만약 그 복음서 자체마저 신뢰할 수 없는 후대의 창작물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먼저 의심을 샀던 것은 요한복음이었고, 이에 사람들은 보다 오래되고 일관성이 있는 다른 세 개의 '공관 복음'에 의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의 나그함마디 Nag-Hammadi에서 진품임이 분명한 새로운 복음서인 '도마 복음'이 발견되었던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예수의 모습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기보다 엉뚱하게도 영지

주의자Gnosticist의 풍모를 더욱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소설 『다빈치 코드』로 유명해진 예수의 십자가 탈출 및 결혼 정착설은 이미 1980년대 초 영국의 몇 작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 이야기이다.** 그 후에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급기야 예수가 불교의 수행자였다고 심각하게 주장하는 이들과까지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일각의 주장일 뿐,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뿐이며, 예수의 일생이 어떠한지, 그가 정말로 말하고 가르쳤고 행동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은 갈수록 분분한 논의에 휩싸이고 있다. 만약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어서 예수가 불교도였다면 교황청은 무얼 해야 할까?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협으로부터 기독교의 존재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의 열개,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 만큼은 남아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만큼은 반드시 지켜 내야만 한다. 마르크스의 경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논쟁과 주장이 나오든 마르크스주의가 성립하기 위해

* Elaine Pagels, *Gnostic Gospels* (Hammondsorth: Penguin, 1990).

** Michael Bagent et. al., *Holly Grail and Holly Blood* (London: Jonathan Cape, 1982). 요컨대 '성배'란 바로 '성혈'을 담은 예수의 후손들을 의미하며 이것을 지키는 비밀 음모가 바로 성당 기사단 이래의 파란만장한 비밀결사의 역사였다는 재미난 이야기였다.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82년 당시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되었지만 기독교 측의 항의로 곧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운 좋게 서점에서 발견하여 바로 구입할 수 있었다.

*** BBC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바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Y0Ib3aPG6Y>

**** 위키피디아의 'Christ Myth Theory' 항목 참조.

만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이 있다면 마르크스가 역사와 사회의 일반적 발전 법칙을 발견했고, 그에 의거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과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일관된 운동론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란츠 메링과 이사야 벌린의 고전적인 전기가 누누이 강조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의 핵심을 차지하는 자리에 『자본론』에 대한 믿음이 있다. 『자본론』이야말로 일관된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생성과 발전과 소멸 과정을 해명하고 새로운 사회가 어떻게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소상히 밝힌 핵심 저작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적 의미가 '십자가'인 것처럼 마르크스라는 인물의 역사적 의미는 『자본론』에 집약되어 있으며, 두 가지가 없다면 두 인물은 설령 살아 숨을 쉬었다고 해도 존재했다고 말하기가 애매해진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조직된 신앙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 『자본론』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논쟁은 1895년 엥겔스가 죽기 직전 3권을 출간한 직후부터 벌어진 일이었다. 엥겔스와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제2인터내셔널 국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과학적 운동 법칙이 『자본론』에서 다 해명되었으며, 그 법칙은 곧 자본주의 경제를 규제하는 가치법칙에 근거하여 경제공황의 필연성을 증명하면서 그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생산양식이 출현하게 되는지를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물론 1867년에 출간된 1권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암시만 되고 있지만, 1883년 마르크스가 죽으면서 남긴 2권과 3권의 원고가 모두 출간되면 그러한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실망은 계속되었다. 2권이 출간되었지만 그 책 전체는 자본주의의 운동이나 운명과는 사뭇 무관해 보이는 세세한 사항들만이 나올 뿐, 정작 직결되어 있는 주제인 재생산 표식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혹평하듯이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끝나 버리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3권의 출간을 더욱더 목을 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권의 출간은 더욱더 큰 혼란과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여기에 전모가 드러난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은 노동시간이 가치가 되어 상품의 실제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품의 가치와 평균 이윤율 아래에서의 가격은 사실상 체계적으로 괴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자본론』의 과학적 경험적 기초라고 할 노동가치의 개념이 사실은 현실에서 관찰할 수도 없는 관념적인 가상물일 뿐이며 그 점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효용’ 개념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 결국 노동가치론이라는 것의 ‘경험적 과학적’ 기초가 이렇게 모호한 것이 되자 그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할 자본주의 경제공황의 필연성이라는 것도 애매하게 된다. 3권에서의 이윤율 저하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는 순한 경향성과 그 반대의 상쇄 경향성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변증법적인 운동을 낳는가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협동 생산체에 대한 파편적이고 인상주의적인 기대를 피력하는 것 이외에는 새로운 생산양식과 사회가 어떤 원칙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설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1894년의 『자본론』 3권의 출간과 그 후유증이 1890년대 후반기의 세계경제 ‘호황’(!)과 맞물리면서 베른슈타인 등의 중심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본론』에 대

* 이 비판을 개진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였다. 그는 오이겐 뵘바베르크의 마르크스 가치론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현실의 경험적 분석과 관찰에 있어서 3권에 개진된 바의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며, 따라서 가치론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논점을 세웠고, 훗날 폴 새뮤얼슨이 내놓은 가치론 비판의 관점을 선회하기도 한다. 엥겔스는 죽기 직전 쾰바르트와 주고받은 서한들에서 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가치법칙의 작동을 화폐경제에서의 교환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형식을 벗어나 역사적으로 몇천 년 전부터 작동해 왔던 것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시도하다가 숨을 거두게 되며, 이러한 접근법은 후에 루빈 등의 간접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이렇게 『자본론』의 ‘경험적 기초’로서 가치법칙의 존재가 유명무실화된 것이 이후 베른슈타인 등의 ‘수정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공황 필연성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기초를 닦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Bo Gustafson, *Marxism and Revisionism: Eduard Bernsteins Kritik des Marxismus und ihre ideengeschichtlichen Voraussetzungen* (Frankfurt: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91) 특히 3장을 보라.

한 믿음을 폐기하게끔 만들기도 했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논의는 이러한 『자본론』에 대한 과학적 신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론과 공황론(혹은 '위기 이론')의 두 부분에서 『자본론』이 비록 완성품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획기적인 과학적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어 온 것이며, 연구의 패러다임은 마르크스가 남긴 여러 경제학 관련 초고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진정한 마르크스 경제학'을 재구성할 것인가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남아 있는 여러 문헌과 기록을 바탕으로 진정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르침을 재구성하지는 시도에 비유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반대의 접근을 취하는 마르크스 전기가 출간된다. 동독의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하여 서독으로 탈출하여 저명한 문필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프리츠 래디츠의 『칼 마르크스: 정치적 전기』였다.** 이 전기는 『자본론』을 명확한 실재적으로 규정했고, 로자 룩셈부르크나 카를 리프크네히트와 같은 이들이 이미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즉 마르크스는 자신이 1850년대 말에 작성했던 처음의 구상으로 정치경제학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 연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이론적 구상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실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구축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의 출간은 애초에 약속했던 시점에서 한없이 늘어지게 되었고, 마르크스는 엉뚱하게 '잉여가치 학설사'에 대해

* 이러한 시도의 가장 중요한 한 예로서 마이클 레보위츠, 홍기빈 역, 『자본론을 넘어서』(서울: 백의, 2000)를 보라. 레보위츠는 『자본론』이 본래의 『경제학』 6권 계획의 1권에 불과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헤겔의 논리학을 방법으로 『강요』에 나타난 바의 마르크스 사유를 재료로 삼아 2권인 『임노동』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레보위츠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주장은 『자본론』 그 자체의 과학성과 위상을 심하게 잠식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Fritz J. Raddatz, *Karl Marx: A Political Biography* (Boston: Weidenfeld and Nicolson, 1978). 독일어판은 1975년에 출간.

한없이 늘어지는 노트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 상태를 빌미로 작업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1권이 출간된 1867년에서 세상을 떠나는 1883년까지 16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 이미 1867년 이전에 작성해 놓은 2권과 3권의 원고에 마르크스가 거의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자본론』은 실패작이며, 그 저작을 통해 자본주의의 과학적 운동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사상가 마르크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저명한 학자도 아닌 일개 저널리스트 그것도 동독에서 넘어온 ‘배신자’가 마르크스라는 엄청난 존재에 대해 이토록 발칙한 도발을 일으켰으니,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그의 전기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무시당하거나 형편없는 저작이라고 호되게 비판받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렇게 도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상이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동일한 논지를 반복한 전기가 거의 동시에 출간된다. 제럴드 자이겔의 『마르크스의 운명: 한 인생의 소묘』가 그것이었다.* 저자는 뉴욕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였으며 출판사는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였으니 학문적인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저작이 아니었다. 자이겔은 마르크스의 삶과 사상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심리학적 방법, 이론적 방법, 역사적 방법의 세 가지 접근을 결합시켜 총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거니와, 그 해명의 초점은 ‘어째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완성하는 데 실패했는가’였다. 마르크스가 무척 좋아했던 소설가 발자크의 한 소설에 나오는 화가처럼 마르크스는 자신의 머릿속에 구축된 바의 현실을 더욱 정밀하게 그려 내고, 또 그려 내다가 마침내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물감 덩어리’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마르크스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 Jerrold Scigel, *Marx's Fate: The Shape of A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된다. 나는 민달팽이가 어떻게 그 딱딱한 껍질과 몸을 부착시키는지를 모르지만, 만약 마르크스라는 개인과 마르크스주의라는 딱딱한 껍질 사이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그 결정적인 지점에 『자본론』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자본론』이 실패작이라면? 우선 민달팽이와 그 껍질이 분리될 것이며, 불가분처럼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그 둘은 이제 각자 새로운 운명에 처하게 된다. 1권을 제외한 『자본론』이 실패한 미완성의 원고 뭉치였다면 마르크스주의는 존속할 수 있게 되는가? 그리고 『자본론』이라는 희망을 빼앗겨 버리고 초라하고 취약하게 몸을 드러낸 민달팽이 마르크스라는 개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개러스 스테드먼 존스의 저술에 나타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이후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는 '19세기의 맥락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바의 인물로서 마르크스'를 복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보인다. 우선 19세기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전제로 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인물로서 마르크스를 그려 내는 전기로 프랜시스 윈의 저작이 출간된다.* 그리고 스테드먼 존스의 이 전기보다 조금 일찍 나온 스퍼버의 『카를 마르크스: 한 19세기 사람의 삶』을 들 수 있다.** 이 저작은 특히 19세기 독일과 프랑스의 급진과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마르크스의 정치 노선과 사상이 그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 Francis Wheen, *Karl Marx: A Life* (New York: Norton and Co., 2001). 이는 정영목 역, 『마르크스 평전』(푸른 숲: 2001)으로 출간되어 있다.

** Jonathan Sperber, *Karl Marx: A Nineteenth-Century Life* (New York: Norton and Co., 2013).

스테드먼 존스의 이 저서는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마르크스 연구의 방향을 확고하게 만드는 저작이라고 할 만하다. 스테드먼 존스는 1960년대 말 이후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상사를 연구해 온 역사가이다. 특히 19세기 정치 사회 사상의 대가로 『캠브리지 19세기 정치사상사』를 제자인 클레이스와 함께 책임 편집하기도 했다.* 그의 정치적 이력도 기억해 둘 만하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8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는 『뉴레프트리뷰』의 편집 위원으로, 캘리니코스의 회고에 따르면 블루멘베르크의 마르크스 전기의 영어판이 나왔던 1972년에는 그 발문에 ‘저자의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의 저작에서는 19세기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을 담론적으로 분석하여 보여 주는 성과를 이루면서 탈구조주의로의 선회를 보이기도 했다.***

이 저작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마르크스 연구와 19세기의 역사 및 지성사 연구가 결합되면서 나온 실로 보기 드문 걸작이라고 생각된다. 방금 이야기한 그의 지적·정치적 이력을 볼 때, 이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마르크스 연구의 두 가지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그에 필적할 만한 이가 또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분량 전체에서 마르크스의 개인사와 인간적 면모에 대한 서술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신 이게 마르크스의 전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배경과 지성사적 맥락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불필요한 현학의 허세가 아니라는 것이 금세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역사적·지성사적 맥락에서 놓고 보았을 때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모습은 우리가 종래에 익숙하게 알던 모습과 너무나

* Gareth Stedman Jones and Gregory Claeys ed., *Cambridge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Alex Callinicos “Marx Deflated”, *International Socialism*, 152. 웹에는 2016년 10월 7일 게재.

*** *Languages of Class: Studies in English Working Class History, 1832–19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비드 매클렐런의 성실하고 균형 잡힌 전기에서 기대할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의 삶과 저작을 아무리 꼼꼼히 사려 깊게 들여다본다고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해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관심의 중심에 놓고서 오래도록 19세기 유럽의 역사와 지성사를 폭넓게 연결시킨 작업에서만 나올 수 있는 해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 책에서 개진되고 있는 여러 논점들을 여기에 요약할 생각도 없고 가능한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독자들이 이 저서의 독창적인 주장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전기에서 그려지는 마르크스가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히 강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철학자로서의 마르크스는 종래의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의 전통과 영향의 연속으로 볼 때에만 그의 역사 철학과 노동 개념 전체가 더 제대로 이해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핵심이 관념론에 맞서는 유물론에 있으며, 자신과 마르크스가 이미 1845년 당시부터 이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 철학 즉 ‘유물사관(materialist conception of history)’을 완성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스테드먼 존스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우선 엥겔스가 말하는 유물론 대 관념론이라는 대립 자체가 지성사적으로 볼 때 다윈의 영향으로 자연주의가 득세하게 된 19세기 말에 나타난 이분법일 뿐, 그 이전에 사유하고 활동했던 마르크스의 사상, 특히 1848년 이전의 마르크스의 사유와는 도저히 연관시킬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는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idealism)이 18세기 프랑크 계몽주의자들 일각을 풍미했던 기계론적 유물론에 맞서서 인간 정신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한 이상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영향을 놓고 젊은 마르크스의 철학 사상의 발전을 일관되게 서술

한다. 그가 박사 논문에서 에피쿠로스를 선택한 것은 흔히 이야기하듯 ‘유물론 철학’의 관점을 보여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브루노 바우어의 강한 영향 아래에서 에피쿠로스를 데모크리토스의 기계적 유물론에 맞서서 ‘자기의식의 철학자’로 제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그는 마르크스의 초기 정치 이론의 발전 또한 독일 관념론의 영향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마침내 포이어바흐와의 철학적 대결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독특한 노동 개념까지도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당대의 대부분의 급진파들 및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유물론적 철학보다는 독일 관념론에서 나타나는 능동적이고 이상적인 인간관을 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창조해 내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과 그 과정으로서의 노동의 개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철학에서 오히려 나타나는 대립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념론 혹은 이상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인간을 스스로를 창조하는 노동의 유적 존재로 생각하여 다른 급진파와 공화주의와 사회주의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역사 철학 또한 ‘물질적 생산력’ 혹은 ‘물질적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이른바 유물론의 관점보다는 인간이 스스로를 외화시키고 그것으로서의 소외/양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 헤겔과의 친화성이 훨씬 더 크다는 함의를 얻게 된다.

둘째, 마르크스는 통념과는 달리 일관된 혁명주의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생을 관통하는 단일의 일관된 정치 노선을 찾아볼 수도 없는 이였다는 것이 이 책의 해석이다. 먼저 1848년 혁명까지의 마르크스는 혁명기의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또 그 속에서의 행동 노선에 있어서나 프랑스혁명의 패턴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려고 했던 입장이었다고 한다. 즉 자유주의자들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국민의회의 집권에서 하층계급과 급진파들의 ‘사회혁명’이

✦ 이 책에서 이 독일 ‘관념론’을 때때로 ‘이상주의’로 번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라고 할 국민공회와 공안위원회의 집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도식을 맹신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1848년 당시의 여러 혁명의 정세를 그릇되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노선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자들과 연대하여 왕당파 반동 세력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선을 긋고 공산주의적 급진파의 독자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양극단을 끊임없이 오갔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러시아혁명 이후 항상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2단계 혁명이냐, 연속 혁명이냐'는 문제가 이미 마르크스의 경직된 프랑크혁명 해석에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다음 30년간 마르크스의 정치 분석과 운동 노선은 실로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1850년대의 마르크스는 1848년에 '실패한 혁명'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계기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서 주변의 '당'을 단속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제공황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이것이 유럽 내의 국제정치에 충격을 주어 러시아와 영국 정부를 필두로 한 반동 연합에 맞선 전쟁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전체 유럽의 혁명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집착에 가깝도록 반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1860년대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조건에 맞는 새로운 입장으로 탈바꿈한다. 노동조합의 단결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자 마르크스'의 시대였다는 것이며, 1860년대에 작성된 『자본론』 원고에 나타나는 평화적 이행에 대한 기대나 제1인터내셔널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등이 이것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871년의 파리코뮌을 계기로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조합과 선거 민주주의에 기대는 '사회민주주의적' 전망을 잃게 되었고, 자신이 『자본론』을 통해 주창하려고 했던 자본주의의 보편적 운동 법칙이라는 것에도 스스로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품게 되었던 정치 노선은 실로 충격적이게도 체르니쎬스키나 헤르첸 등의 '인민주의자들(Narodniks)'과 마찬가지로 촌락 공동체의

발전과 강화였다고 한다.

셋째, 마르크스의 경제사상의 궤적 또한 일반적인 통념과 전혀 다르게 그려진다. 우선 그의 자본주의 비판의 관점은 앞에서 말한 독일 관념론 전통의 '노동' 개념뿐만 아니라 소외 및 추상화라는 포이어바흐의 관점과 그에 연관된 모제스 헤스의 화폐 비판 및 엥겔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소급된다. 요컨대 넓은 의미에서의 헤겔 철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간 공동체의 유적 본질이 파괴되고 화폐와 교환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적대적 관계라는 소외된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테면 만델 같은 이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마르크스 경제사상의 출발점은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과학적 정치경제학'과 착취 이론의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째서 1850년대 말에 쓰인 『강요』가 그렇게 원대하고 야심 찬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 1860년대에 들어 어째서 첫 권인 『자본론』의 집필이 그토록 여러 번의 초고를 되풀이하는 난맥상을 보였는지, 『자본론』이 어째서 1867년에 1권만 출간되었고 그 뒷부분의 작업이 한없이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째서 마르크스의 손을 떠나 엥겔스가 수습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의 비극적 과정을 모두 설명해 준다. 스테드먼 존스의 설명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강요』의 작업을 하던 당시에 노렸던 바는 기독교의 창궐과 함께 고대적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서 화폐적 관계와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마침내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내적인 모순에 의해 어떻게 내파를 겪게 되는지, 그리하여 마침내 그보다 생산력에서도 우월하고 인간 공동체의 소외 또한 극복된 더 높은 단계의 경제 구성체로 지양되는지를 역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동시에 그

* Ernest Mandel, *The Formation of Economic Thought of Karl Marx: From 1844 to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려 내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지 영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 지구를 아우르는 세계사적 규모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가치론에서 전반적 공황까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명쾌한 경제 이론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했으며, 또한 그러한 세계사적 진행 과정을 단순히 철학적 사변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경제사 데이터가 있어야만 했던바, 이는 19세기 중반의 학문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결국 1860년대 들어와서 마르크스가 작성한 『자본론』의 여러 초고들을 보면 횡수가 거듭될 때마다 이렇게 경험적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거시적 사변적 부분들을 계속 잘라 내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계속된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는 ‘포섭’의 개념조차 최종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난관에 몰린 마르크스는 결국 과학적 저작으로서 출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출간하지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바, 그것이 1859년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리프크네히트는 이 저작에 너무나 실망하여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와 1867년의 『자본론』 1권이었다고 한다. 엥겔스를 위시한 모두가 1권만으로는 결코 마르크스가 원래 약속했던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어서 나머지를 출간하라는 강한 압력을 넣지만, 마르크스는 사실상 작업을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사후 남겨진 원고 더미를 추슬러서(그 과정에서 시력을 잃는다) 2권과 3권을 간신히 엮어 놓지만, 원고에 대해 마르크스는 1867년 이후에는 거의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년의 마르크스는 심지어 자본주의의 일반적 혹은 보편적 운동 법칙과 발전 법칙이 있는지(자신의 가장 중요한 지적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명제이기도 했던)조차도 의심스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인도나 중국 등의 식민지 그리고 러시아 등의 후진 농업 지역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한다. 요컨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작업은 애초부터 경험적 과학에

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변을 입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실적 난점과 이론적 아포리아에 부닥쳐 처절하게 실패하고 중단된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은 마르크스의 만년에 벌어졌던,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의 정반대 방향으로의 결별이며 이 부분이야말로 스테드먼 존스의 전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그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1870년대 중반 이후 엥겔스의 마르크스 사상 ‘대중화’ 작업의 산물이며, 이것이 1880년대의 독일 사회민주당과 1890년대의 제2인터내셔널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것임을 강조한다. 비록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반두링론』이나 『자연변증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는 도저히 마르크스의 철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며,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처럼 다윈의 영향으로 자라난 새 세대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다윈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살아생전의 마르크스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일부인 아이제나흐 분파에 대한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영향력도 큰 명성도 얻지 못했고, 『고타 강령 비판』이 무시되는 과정에서 보듯 아이제나흐파에 대한 영향력도 결코 확고한 것이 아니었다. 1880년대 들어와서 반전이 벌어지게 된 것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성장과 발맞추어 그 요구에 맞게 엥겔스가 적극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재구성(혹은 ‘통속화’)시킨 것에 있었다고 한다. 이에 그야말로 과학성이 의심스러운 통속적 유물론과 속류화된 다윈의 진화론과 프랑스 실증주의 등 시대의 유행에 맞는 여러 조류들이 합쳐지면서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1891년의 에르푸르트 강령으로 구체화된다.

반면 만년의 마르크스의 관심사는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간다. 위에서 본 철학자, 정치 지도자, 경제사상가인 마르크스가 1870년대에 도달한 귀결점은 한때 그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거부했던 러시아의 미르Mir와 같은 촌

락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전까지의 마르크스의 사유와 실천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종착점일 수 있다. 전체와 개인의 모순이 사라지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통합을 통해 모든 소외가 극복된 사회, 노조의 분파적 이익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에 갇혀 체제의 일부로 통합되어 가는 노동운동을 넘어서는 단결과 연대의 단위,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의 파상적인 팽창에서 벌어지는 온갖 참극을 막아 낼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한 방파제 등의 요건을 모든 인간 사회에 편재하는 크고 작은 촌락 공동체에 기대어 보는 것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보는 이에 따라 급작스럽게 뚝 끊기며 끝이 난다고 할 수도 있다. 실제 어떤 서평자는 이 책에 전체 논의를 아우르면서 총체적인 마르크스의 상을 그려 내는 결론 장이 아쉽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나의 의견은 다르며, 실로 흥미할 만한 깊은 아이러니를 극적으로 담아낸 결말이라고 본다. 그러한 결론의 역할은 오히려 이 책의 맨 앞부분인 프롤로그가 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세기에 벌어진 마르크스의 우상화와 왜곡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실 이 책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대신 결론으로 베라 자술리치, 마르토프, 플레하노프 등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를 까맣게 잊고 있는지의(혹은 잊은 척하는지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처음으로 형성시키고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냈던 제2인터내셔널은 제1차 세계대전이 가까워 오면 벌써 지리멸렬해지지만, 그 뒤를 이어 레닌과 볼셰비키의 러시아혁명과 제3인터내셔널이 바통을 이어 마르크스주의의 깃발을 이어 간다. 그런데 이들의 출발점은 바로 마르크스의 이름을 들어 러시아 촌락 공동체의 가능성을 믿는 '인민주의자들Narodniks'을 철저하게 논파하고 부정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믿었던 도끼 카를 마르크스는 체르니셴스키의 뒤를 따라 '인민주의자'의 입장에 동화하고 있다. 이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마르크스의 편지를 '망각'해 버리고 만다. 마르크스

라는 민달팽이와 마르크스주의라는 껍질이 이토록 이질적인 결말을 보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 주는 결말이 또 있을까? 사상가로서 실천가로서 마르크스의 인생의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를 이렇게 잘 보여 주는 결말이 또 있을까?

카를 마르크스:

모든 환멸과 환상을 넘어선 자리에서 발견되는 위대함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윤민석,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니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왜곡 때문에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나치즘의 선구적 사상가로 오인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깔끔히 풀어낸 저작이 월터 코프먼의 니체 전기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1880년대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와 칭칭 엮이는 바람에 여러 오해와 무시를 겪고 있다. 그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스테드먼 존스의 전기를 번역함으로써 그러한 폐해에 조금이라도 대처하고자 한

* Walter Kaufmann, *Nietzsche: Philosopher, Psychologist, and Anti-Chri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다. 이 전기는 그런 면에서 월터 코프먼의 니체 전기에 필적하는 중요성을 가진 획기적 저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전 세계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좌파들의 분노와 냉소의 대상이었던 듯하다. 앞에서 인용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서평이 그러한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에게 마르크스는 역사와 사회와 인간의 비밀을 발견하여 밝혀 보여 준, 불을 훔쳐 온 프로메테우스일 터이다. 하지만 이 책에 나타난 마르크스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다. 혼란스럽고 애매하며 생경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도록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돌진하고 쓰러지고, 또 돌진하고 쓰러지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그려진 마르크스의 모습은 프로메테우스는커녕, 무거운 바윗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굴러떨어진 바위를 또다시 밀어 올리는 고된 노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시포스에 더욱 가깝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융틀임하고 있는 21세기의 시점에 아마도 마르크스를 정말로 프로메테우스로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식자라는 이들은 진보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까지도 마르크스가 아직도 대단한 어떤 것을 감추고 있는 존재인 양 여기면서 경의를 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체 게바라와 밥 말리에게서 벌어진 것과 똑같은 일이다. 아무도 읽지도 않고, 따를 생각도 없고, 그 결함과 장점과 한계와 창피스러운 실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올해는 그의 탄생 200주년이라고 하여 또 술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술한 말과 글과 알코올과 니코틴, 카페인이 그의 이름을 빌미로 출렁거리고 넘쳐 날 것이다. 서양말로 '정보 점보'이며, 우리말로 하자면 사당에 들어앉아 만신의 받음을 받는 최영 장군이다. 사람들은 그 앞에 줄지어 서서 향을 피울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면 자식과 가족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빌지도 모른다.

이 책이 이론 정말로 소중한 업적이 있다면, 마르크스가 그렇게 프로메테우스가 되어 사당에 들어앉아 모든 '쿨한' 진보파들의 수호신으로 영원히 향냄새를 맡게 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실패와 실패로 누덕누덕해진 시시포스이며, 그런 구린 땀내를 피우는 '찌질한' 존재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로 여기에서 19세기 최고의, 아니 전 인류의 모든 지성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의 모습을 본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류 사상사에서 자신이 구축하고 발전시켰던 이론과 입장을 마르크스만큼 여러 번 극적으로 틀어 버리고 바꾸면서 맨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한 인물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조금 더 타협하고 조금 더 자기의 기존 입장과 이론을 우러려는 자세를 취했다면 아마도 살아생전에 훨씬 더한 고생으로 훨씬 더 큰 명예와 인정을 얻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일까? 왜 그는 '자기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모두 포기해 가면서 돈이 없어 아기가 죽은 그날 밤 아기의 시신을 눕히고 마룻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다섯 가족이 누워 끌어안고 통곡해 가면서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갔을까?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가 꿈꾼 세상, 진리와 정의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이 형제와 자매가 되며 노동이 축복받고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고 착취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존재 이유로 보아 귀하고 귀하게 대하는 세상, 그래서 나와 너의 행복과 불행이 구별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찌질하고 한심한 시시포스의 땀에 전 이마 속에는 이러한 고귀한 이상이 숨 쉬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의 어떤 인간적 결함을 누가 들이댄다고 해도 자신이 구축한 모든 사유와 작업을 이러한 이상에 맞추어 초개같이 저버릴 수 있는 인간은 우러러볼 수밖에 없다.

둘째, 그렇게 해서 바윗돌을 밀어 올린 언덕마다 산마다 그는 실로 놀랄 만한 걸작을 남겼다. 어떤 방향으로의 사유와 실천이든 그는 온몸을 던졌고, 사 위 라파르그의 회상대로 '무조건 9시에 일어나 새벽 두세 시까지 밥 먹을 때 빼고' 기를 쓰고 작업했다. 그 결과 그는 놀랄 만큼 저작물의 질을 높고 고르게 유지했다. 저널리즘이 되었든, 논쟁이 되었든, 실제 조사가 되었든 그는 자신이 일 단 작업과 개념의 방향을 정하고 나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질의 저작물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서 인류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19세기는 인류가 산업 자본주의라는 미증유의 거대한 실험에 몸을 던진 상태였고,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풍요와 엄청난 참상이 함께 나타난 혼란의 시대였다. 이때 그 폭발 상태의 인간 사회에 온몸을 던져 가는 방향마다 최고의 보고서와 최고의 사유 실험과 최고의 데이터를 모아 온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마르크스의 글을 읽고서 내용이 없고 뻔하고 졸리다고 말하는 이를 본 적이 있는가? 교활하고 사투한 글쟁이라고 말하는 이를 본 적이 있는가?

마르크스의 여러 방향으로의 저작과 연구와 실천 덕분에 그 이후의 인류는 겪어야만 했을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수와 지적 착각을 피해 갈 수 있었다. 21세기의 초입에 선 인류는 거의 누구도 앞길을 훤히 밝혀 주는 성인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전인미답의 길 위에 선 우리에게 어차피 시행착오와 슬랩스틱 코미디가 운명이라면 마르크스처럼 몸을 던지고 거기에서 최상의 작업을 빼 오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올해 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에 서라고 생각한다. 진리와 정의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의 꿈 하나만 남겨 두었던 인간, 그 이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인류에게 남겨 둔 인간. 당연히 그의 삶과 행동과 사상은 상처와 모순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그것들을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20세기 는 엉뚱한 '마르크스주의의 시대'가 되고 말았고, 그나마 끝장이 난 21세기에 다

시 우리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횡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중에는 무수히 많은 마르크스가 나타날 것이며, 그들과 그녀들의 시시포스와 같은 작업은 더 이상 헛된 노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완벽한 지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마르크스에게 투사하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그를 구실로 삼아 마르크스를 조롱과 조소와 무시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들은 루쉰 선생의 글을 한번 읽어 볼 일이다.

.....

전사가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파리 떼들이 우선 발견하는 것은 그의 결합과 상처이다. 그들은 그것을 빨아 대며 앵앵거리며, 죽어 간 전사보다 자신이 더 영웅이라고 득의양양한다. 그러나 전사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것들을 쫓아 버리지 못한다. 이리하여 파리 떼들은 더욱 앵앵거리며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불후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어 간 전사보다 훨씬 더 무결점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렇다. 누구도 파리 떼들의 결합과 상처를 발견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결합이 있어도 어쨌건 전사는 여전히 전사이며, 파리 떼는 여전히 파리에 불과하다.

물러가라, 파리 떼들아! 비록 날개가 있고 앵앵거릴 주둥이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영원토록 전사를 초월할 수는 없다. 이 벌레들아!*

* 노신문학회, 『전사와 파리』, 『노신선집』 2권, (서울: 여강, 1991). 번역 일부 수정.